

대만 해외시장동향(2024년 5월)

'24. 5. 29(수) / 타이베이지사

= [대만] 방한 대만관광 '다소 주춤한 4월, 다시 상승세 5월' =

[주요내용 목차]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동향

- '24.1~2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4.1~2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4.1~2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3분기 주요 지역 해외여행단체가 등 전망

1.2 대만 인바운드 시장동향

- '24.1~2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4.1~2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4.1~2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 대만 16대 라이칭더 총통 취임(5.20), 중국 대만포위훈련 실시
- 대만 신정부(행정원), '24년 경제성장률 3.5% 이상 목표
- 대만, 신규 대만관광브랜드 3.0 'Waves of Wonder' 발표
- 대만 관광서 해외지사장 회의 개최
- 대만, 프랑스 파리에 대만관광 인포메이션 센터 설립
-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주요 관광벨트 조성계획 대상지 선정

1.4 경쟁국 동향

- (태국) 대만입국객 비자면제제도 연장 결정
- (인도) 대만내 방인도 인지도 개선 등 목적 Summer Festival 개최
- (대만) 일본 나고야에서 방대만 홍보 행사 개최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4.1~4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2.2 방한 항공동향

- '24.1~4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19년 대비 회복률
- '24.4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 한-대만 항공노선 현황표
-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 방한 대만관광 '다소 주춤한 4월, 다시 상승세 5월'
- 여름 성수기 아픈고 제주도, 가족여행 중심 방한관광 관심 증대

3. 타이베이지사 '24.5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동향

○ '24.1~2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a/b	a/c
1월	1,281,751	696,474	1,299,722	184.0%	98.6%
2월	1,389,474	652,943	1,468,616	212.8%	94.6%
3월		736,283	1,396,026		
4월		830,184	1,415,406		
5월		877,833	1,463,759		
6월		1,131,234	1,570,675		
7월		1,235,822	1,581,016		
8월		1,182,468	1,481,669		
9월		1,080,168	1,372,190		
10월		1,218,643	1,517,174		
11월		1,096,976	1,343,563		
12월		1,056,806	1,191,519		
계		11,795,834	17,101,3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5.28 현재 '24.2월까지 데이터만 발표)

○ '24.1~2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1월 (비중)	494,657 (38.6%)	184,626 (14.4%)	92,806 (7.2%)	88,788 (6.9%)	85,805 (6.7%)	92,903 (7.2%)
2월 (비중)	503,512 (36.2%)	209,059 (15.0%)	96,674 (7.0%)	103,828 (7.5%)	100,069 (7.2%)	107,369 (7.7%)
(b)'23 비중*	35.8%	14.9%	8.1%	7.2%	6.6%	6.3%
(c)'19 비중*	28.7%	23.6%	7.1%	5.0%	4.9%	9.8%
'19.1월 비중	30.5%	20.5%	6.6%	4.5%p	5.0%	11.2%
'19.2월 비중	27.6%	23.4%	6.3%	4.7%p	5.1%	12.2%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4.1~2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인의 '24년 2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389,474명으로 2019년 동기(1,468,616명) 대비 94.6%로, 지난 1월 98.6%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2배 이상 급증하였음

- 아웃바운드 목적지별로는 동남아 국가의 증가율이 확연히 눈에 띈.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103,828명, 199,069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월 방문객수 10만명을 넘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7.2%였음. 이러한 비중은 전월 비중(6.9%, 6.7%)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코로나 이후 동남아 관광에 대한 대만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무비자제도는 동남아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태국은 지난해 말부터 대만인 대상 비자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베트남 푸꾸옥도 외래객 대상 비자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소식에 따르면 2023년 푸꾸옥을 방문한 외래객 가운데 70%가 대만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또한 동남아 관광이 인기를 끄는 데는 항공편 증가와 항공요금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항공요금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는데 이로 인해 장거리 여행보다 동남아 등 단거리 관광이 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아울러 여름 성수기 시즌 베트남 비엠텟항공, 대만 타이거에어, 싱위항공 등이 푸꾸옥행 노선을 증편하거나 신규취항할 예정임
- 홍콩은 '19년 대만 아웃바운드목적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코로나 이전 '19년의 9.8%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1월 7.2%, 2월 7.7%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2월 비중이 36.2%로 전통적인 압도적인 인기 목적지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코로나 이전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일본에 이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방중 관광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대만 여행사의 80%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3~5월 기간 2월까지 모객된 대륙단체관광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3월부터는 다시 모객이 중단된 상태로, 6.1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대만 여행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방중 대만관광객은 1~2월 18~20만명 수준에 그쳤으며 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3~5월은 21~23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대만 신임 교통부장(李孟諺) 발언(5.23)) 이로 인해 중국은 코로나 이전에는 23.6%를 차지했으나 '24.2월에는 15% 정도의 비

중을 차지하는데 그쳤음

○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3분기 주요 지역 해외여행단체가 등 전망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中華民國旅行業品質保障協會) 개요]

- 대만 여행업체들이 여행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한 사단공익법인
- 현재 총 3,880개 여행사가 회원으로 가입(대만 전체 여행사 90% 이상 포괄)
- (주요역할) 여행분쟁 조정업무(여행사 대상 일정 정도의 구속력 있음), 여행사 설립 보증금지원, ※대만 교통부 관광서와 협업 관계

구 분	단체상품가	주요 동향
일본	NTD2.6~5.5만 (한화109만~231만원)	·7~9월 여름휴가철 맞아 개별여행객 및 가족여행객 증가(대도시 중심) ·(상품가 높은 이유 4가지) 1.인력난 여전(입국검역요원, 지상요원 등)/ 2.4월부터 버스운행시간 초과제한 엄격 시행. 단체관광일정 매우 보수적으로 안배/ 3.엔저현상으로 일본국민 해외여행 감소 및 국내여행 전환으로 국내여행 호황, 한중 전세기 방일관광 크게 증가로 식당&버스요금 크게 상승/ 4. 물가 및 유가 상승 ☞ 여행상품 원가, 대만 역사상 최고점 형성 ·9월말 이후에는 단풍관광 시작되어 항공료 지속해서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 ·올해 상품가가 물론 높게 형성돼 있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항공좌석 공급량은 증가해 항공료가 다소 낮아졌으며 올해 상황은 지난해 대비 좋지는 않아 상품 판매가는 지난해 동기대비 약 10% 정도 낮은 상황
한국	NTD1~3만 (한화42만~126만원)	·7~8월 제주도 및 가족여행 문의 가장 많음 ·9월 단체관광객은 부산이 가장 많고 서울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방한상품에서는 쇼핑센터(인삼 등)불포함 상품이 많아지고 있고, 한국관광공사 추천 우수상품이 증가하면서 한국관광 품질 향사 ·2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약 10% 가격 인상/ 성수기 및 숙박요금 인상 반영
동남아	NTD2.3~4.6만 (한화97만~193만원)	·태국비자면제연장(푸켓 직항 전세기 출시)_최대 수혜국 ·7~8월 항공사 단체요금, 전분기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 전체판매상황 기대보다 저조

1.2 대만 인바운드 시장동향

○ '24.1~2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a/b	a/c
1월	589,961	254,359	867,711	231.9%	68.0%

2월	648,348	369,098	956,202	175.7%	67.8%
3월		486,171	1,079,498		
4월		553,211	1,101,393		
5월		516,396	1,039,758		
6월		509,693	932,697		
7월		543,388	988,765		
8월		590,458	1,030,937		
9월		538,658	794,415		
10월		621,649	939,131		
11월		689,105	990,397		
12월		814,765	1,143,201		
계		6,486,951	11,864,10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5.28 현재 '24.2월까지 데이터만 발표)

○ '24.1~2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6,321 (14.6%)	95,693 (16.2%)	113,192 (19.2%)	42,513 (7.2%)	17,110 (2.9%)
2월 (비중)	101,076 (15.6%)	101,464 (15.6%)	110,210 (17.0%)	43,979 (6.8%)	39,059 (6.0%)
(a)'23 비중*	18.5%	14.3%	11.5%	8.2%	5.9%
(b)'19 비중*	14.8%	18.3%	10.5%	5.1%	3.4%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016 (4.7%)	32,935 (5.6%)	32,365 (5.5%)	38,750 (6.6%)	30,736 (5.2%)
2월 (비중)	53,540 (8.3%)	24,322 (3.8%)	30,802 (4.8%)	33,362 (5.1%)	37,719 (5.8%)
(a)'23 비중*	6.7%	7.2%	6.1%	5.9%	3.5%
(b)'19 비중*	4.5%	3.9%	3.5%	4.3%	22.9%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4.1~2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24.2월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는 648,348명으로 전년 동기(369,098명) 대비로는 175.7%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2019년 동기 실적(956,202명)에 비해서는 67.8%에 머물러 1월 실적치 증가율에 비해서도 다소 감소하였음

- 대만은 올해 인바운드관광객 목표치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19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고려했다가 최종적으로 10백만명으로 확정하였으나 현재 추세를 고려했을 때 다소 버거울 가능성이 있음
- 국가별로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2개월 연속 한국이 일본과 홍콩/마카오를 제치고 제일 많이 대만을 방문하였음. 2월에는 110,210명으로 전체에서 17.0% 차지하였으며 이는 '23년 비중 11.5%, '19년 비중 10.5%를 각각 5.5%p, 6.5%p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전체 방대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 대만 16대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5.20), 중국 대만포위훈련 실시
 - 취임사 통해 향후 주요 국정방향 언급(양안관계)
 - '4가지 견지'* 계승,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으며 현상유지할 것
 - * 전임 차이잉원 총통이 밝힌 입장('21) 1. 자유민주적 헌정체제 견지 2. 대만-중국 상호 불예속 견지 3. 주권침해·합병 불허 견지 4. 대만국민 뜻에 따른 대만미래 결정 견지
 - “중화민국 헌법에 근거해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
 - “대등하고 존엄한 원칙하에, 양측이 대등한 관광교류와 방대만 유학 허용”부터 다시 시작하길 제안
 - ※ 대만 신임 교통부장(李孟諺), 양안관광은 순차적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나 대만이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것도 배제하진 않음(5.23)
 - ※ 양안관광은 현재 회복되지 않은 상태. 대만은 '24.3~5월 대만인의 방중단체 관광을 2월까지의 모객분만 허용하되, 3월부터는 모객을 금지하였으며 6월 이후의 단체관광 허용에 대해 5월말경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 대규모 '대만포위 군사훈련' 실시(5.23~24)
 - 중국 인민해방군, 대만해협과 대만 동·남·북부 및 진먼다오·마쭈섬 등에서 합동 군사훈련 실시
 - 중국, “'독립' 추구 '대만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자 외부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의미 부여

○ 대만 신정부(행정원), '24년 경제성장률 3.5% 이상 목표

-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올해 경제성장률 3.5% 이상 목표 제시

※ 라이칭더 새로운 정부 구성 이후 첫 번째 행정원 회의 석상(5.23)

※ 각 기관별 대만 '24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참고) '24.1분기 성장률 6.51%

발표기관	주계총처	중앙은행	대만경제연 구원(TIER)	중화경제연 구원(CIER)	IMF	ADB
성장률(%)	3.43	3.22	3.29	3.38	3.1	3.0
발표일	'24.2.29	'24.3.21	'24.4.25	'24.4.19	'24.4.16	'24.4.11

- 국발위, 올해 GDP 3.33~3.46% 예상('23년 1.31%)되는 가운데, 3.5% 목표 달성 여부는 하반기 국내외 정세에 달려 있다고 분석

구분	내용
수출	△AI 등 신기술분야 활력으로 수출액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전통산업 수출회복이 더더 경쟁력 강화 및 수출제품 다양화 및 공급망 강화 노력
국내투자	△미중경쟁 등 지정학적 정치요인 영향으로 일부 전통산업은 자본투자에 신중한 태도, △정부는 투자 모멘텀 확대에 적극 노력 ('인공지능섬'(대만) 홍보, 5대 신뢰산업* 발전, 미래지향산업, 항공우주, 해양 등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 등으로 과학기술분야 선도지위 유지), △국내투자환경 지속 최적화 및 공공건설 집행률 제고/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 보안, 차세대 통신
민간소비	△현재 국내 요식업 및 소매업 호황, 주식시장 활황, △물가, 주택가격, 빈부격차 문제 개선 적극 노력, 사회안전망 개선 노력, △관광진흥정책 등으로 국내관광시장 활성화, △교통, 주거, 취약부담 경감 정책 시행
물가	△올해 대만 소비자물가지수(CPI) 2% 증가 예상, △주요 원자재 세금부담경감을 6월말까지 연장, △국내 에너지가격 안정 노력
기타	△국가희망프로젝트 청사진 추진, △경제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건설 노력

○ 대만, 신규 대만관광브랜드3.0 'Waves of Wonder' 발표(5.6)

- (주제) 대만의 매력, 무한의 놀람(台灣魅力、驚喜無限)

- (제작 포인트)

- 대만의 다양한 매력과 아름다운 지역, 자연환경, 사계 관광 포인트
- 'TAIWAN' 글자체는 대만의 산맥과 해양, 구불구불한 도로와 철도 등을 상징. 물결 모양의 곡선과 어울리도록 설계, 아울러 새벽 일출의 태양빛의 곱색은 따듯한 활력과 어울리는 것으로 대만의

향후 관광발전가능성 상징

- (기존 브랜드) Touch Your Heart(1.0), Heart of Asia(2.0)_2011년

TAIWAN
WAVES OF WONDER

○ **대만 관광서 해외지사장 회의 개최(5.6-8)**

- (주관) 대만 교통부 관광서
- (참가대상) 16개 해외 사무소
- (회의목적) 방대만 외래객 1,000만명 목표 달성, 관광산업회복 가속화, 관광서로의 조직 확대개편에 부흥
- (참고사항)
 - 대만 인바운드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 ※ 주력시장* 확고화 및 잠재시장** 발굴
 - * 일본, 한국, 홍콩/마카오, 동남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 ** 구미주 장거리 시장 및 인도네시아·인도
 - 화렌지진으로 인한 방대만 관광 안전우려해소 위한 홍보영상제작

○ **대만, 프랑스 파리에 대만관광 인포메이션센터 설립(4.30)**

- (목적) 프랑스 관광객에게 대만 관광 관련 각종 정보 및 문의 응대
- (대만 해외관광조직) 16개 관광사무소 조직(본부 인력 파견)* 운영
 - * 유럽에는 런던 및 프랑크푸르트 등 2곳에 사무소 설립
 - ※ 관광사무소 이외 대만은 향후 8개 관광 인포메이션센터(TTIC, Taiwan Tourism Information Center,) 설립 예정으로 파리 세터는 유럽 최초 인포메이션 센터 임. 본 센터는 본부 파견 인력이 아닌 현지인력 중심으로 운영 예정
- (파리 센터 설립 배경) 프랑스는 유럽에서 방대만 관광객 규모가 3번째로 많음('19년 기준 약 57,400명, '23년 43,000명)

○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주요 관광벨트 조성계획 대상지 선정(5월)**

- (사업명) 중요관광벨트 포인트 조성계획(重要廊帶亮點營造計畫)
- (주 관) 교통부 관광서

- (사업목적) 지방정부의 관광부문 건설·운영 강화, 지방정부 지정 관광 특구와 기존 관광권(17개) 연계 개발,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지원 등
- (사업기간/투입예산) 2024-2026년/ NTD15억(약 630억원)
- (대상지역) 6개 지자체(타오위안, 먀오리, 타이난, 가오슝, 이란, 화롄)
 ※ 각 지역별 제출한 사업계획(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건설) 지원
- (기대효과) 연 관광객수 4.5% 증가, 관광부문 총생산액 약 NTD1,906억(약 8조원)

1.4 경쟁국 동향

- (태국) 대만입국객 비자면제제도 연장 결정(5.7)
 - 태국, 대만인 대상 30일 비자면제 제도를 올해 11.11까지 6개월 연장
 - '23.11.10 이후 올해 5.11까지 6개월간 비자면제제도 기 추진
 - 이번 비자면제제도를 통해 대만은 '23년 방태국 대만관광객 약 75만명, '24년 100만명 돌파 기대
- (인도) 대만내 방인도 인지도 개선 등 목적 Summer Festival 개최
 - (기간/장소) 5.25-26/ 타이베이 화산1914 공원
 - 대만내 최대 인도 문화 축제
- (대만) 일본 나고야에서 방대만 홍보 행사 개최
 - (주관) 대만 관광서 및 관광협회
 - (기간/지역) 5.16-20, 일본 나고야
 - (내용) 일본 여행업계와의 B2B, 소비자 대상 로드쇼('2024 대만 여행관 in 나고야')
 - ※ 대만 신규 관광브랜드3.0 론칭 홍보 연계 추진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4.1~4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a/b	a/c	'24년 전체 방한객수(d)	a/d
1월	93,589	49,477	87,954	189.2%	106.4%	880,881	10.6%
2월	96,704	47,970	94,559	201.6%	102.3%	1,030,244	9.4%
3월	115,578	63,504	98,510	182.0%	117.3%	1,491,748	7.7%
4월	117,606	45,434	113,072	258.9%	104.1%	1,462,797	8.0%
1~4월	423,477	206,385	394,095	205.2%	107.5%	4,865,670	8.7%
5월		66,654	101,779				
6월		97,365	118,437				
7월		103,566	113,587				
8월		98,854	109,273				
9월		92,411	102,758				
10월		96,845	127,944				
11월		86,141	102,241				
12월		80,633	90,379				
계		960,607	1,260,493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4년 4월 방한 대만관광객수는 117,606명으로 3월에 이어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45,434명) 대비로는 258.9%, '19년 동기(113,072명) 대비로는 104.1% 회복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1~4월 대만관광객수(423,477명)가 전체 방한객수(4,865,67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로 2019년 대만관광객수(1,260,493명)가 그해 전체 방한객(17,502,756명)에서 차지한 비중 7.2%보다 1.5%p나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대만 양측간의 방문객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월과 2월에는 방대만 한국인이 방한 대만인보다 앞섰으며 1월과 2월 양측 방문객 합계는 각각 206,781명, 206,914명을 기록하였음

※ 2024년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93,589	113,192	206,781
2월	96,704	110,210	206,914
3월	115,578		
4월	117,606		
5월			

○ 입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공항
'24.1월	93,589	54,497 (58.2%)	18,191 (19.4%)	8,845 (9.5%)	5,104 (5.5%)	6,700 (7.2%)
'24.2월	96,704	51,353 (53.1%)	21,317 (22.0%)	8,196 (8.5%)	7,033 (7.3%)	8,522 (8.8%)
'24.3월	115,578	55,121 (47.7%)	28,464 (24.6%)	8,982 (7.8%)	9,560 (8.3%)	10,052 (8.7%)
'24.4월	117,606	58,771 (50.0%)	26,436 (22.5%)	9,321 (7.9%)	10,384 (8.8%)	8,800 (7.5%)
'23년 전체	960,607	548,980 (57.1%)	197,688 (20.6%)	70,765 (7.4%)	61,441 (6.4%)	71,581 (7.5%)
'19년 전체	1,260,493	753,866 (59.8%)	240,877 (19.1%)	60,225 (4.8%)	58,558 (4.6%)	113,348 (9.0%)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대만 관광객의 입국 루트별 비중은 물론 수도권 지역으로의 입국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후 김해공항을 통한 입국 비중이 2019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실제로 '24.4월 수도권 지역으로의 입국을 위한 공항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비중은 각각 50.0%와 7.9%로 2019년 전체 비중 59.8%와 4.8%와 비교했을 때 각각 9.8%p 감소, 3.1%p 증가를 보여 두 공항 합계로는 6.7% 감소하였음
- 반면 4월 김해공항 입국객은 2019년 대비 3.4% 증가하였는데 4월의 경우 제주지역 입국객수의 증가추세가 가파름. 제주지역 입국객은 2019년의 경우 4.6%에 불과했으나 '24.4월의 경우 8.8%로 4.2%p나 증가하였으며 3월과 2월에도 각각 8.3%, 7.3%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2 방한 항공동향

○ '24년 1~4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19년 대비 회복률 (단위 : 편)

구 분	'24년(a)	'23년(b)	'19년(c)	회복률(a/b)	회복률(a/c)
1월	2,062	1,011	1,960	204.0%	105.2%
2월	2,055	1,089	1,834	188.7%	112.0%
3월	2,086	1,313	1,988	158.9%	104.9%
4월	1,964	1,513	1,938	129.8%	101.3%
5월		1,556	2,023		
6월		1,504	1,929		
7월		1,598	1,969		
8월		1,585	2,040		
9월		1,685	2,100		
10월		1,768	2,488		
11월		1,685	2,353		
12월		1,891	2,470		
계		18,198	25,092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4.4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 () '19년 동기 대비 회복률 (단위 : 편)

구 분	'24.4월	'24.3월	'24.2월	'24.1월	'19.4월
타이베이-인천	698 (98.2%)	728 (98.5%)	699 (100.3%)	725 (98.8%)	711
타이베이-부산	414 (101.5%)	463 (111.3%)	434 (115.4%)	460 (109.8%)	408
타이베이-대구	131 (63.3%)	147 (71.7%)	152 (82.6%)	160 (78.8%)	207
타이베이-제주	166 (221.3%)	144 (194.6%)	132 (200.0%)	103 (147.1%)	75
타이베이-청주	119 (195.1%)	155 (234.8%)	172 (277.4%)	122 (190.6%)	61
타이베이(송산)-김포	120 (100%)	124 (100%)	116 (103.6%)	124 (100%)	120
가오슝-인천	158 (87.8%)	160 (86.0%)	150 (89.3%)	158 (84.0%)	180
가오슝-부산	60 (100%)	61 (98.4%)	58 (103.6%)	62 (140.9%)	60
가오슝-김포	64 (-)	54 (-)	50 (-)	58 (-)	-
타이중-인천	34 (68.0%)	36 (75.0%)	76 (158.3%)	72 (138.5%)	50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한-대만 항공노선 현황표 (24.5.27 기준) ※붙임자료 참조

대만 발	노선	편명	시간	기종	좌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한항공	TPE-ICN	KE186	13:20-16:50	777-300	338	Y	Y	Y	Y	Y	Y	Y
	TPE-ICN	KE188	18:55-22:35	A220-300	140	Y	Y	Y	Y	Y	Y	Y
	TPE-PUS	KE2250	11:30-15:00	A220-300	140	Y	Y	Y	Y	Y	Y	Y
	RMQ-ICN	KE190	18:50-22:40	B737-8	146		Y		Y		Y	
아시아나	TPE-ICN	OZ712	13:15-17:05	B777	301	Y	Y	Y	Y	Y	Y	Y
	TPE-ICN	OZ714	17:10-20:40	A330	290	Y	Y	Y	Y	Y	Y	Y
에바항공	TPE-ICN	BR160	15:15-18:45	B787-10	304	Y	Y	Y	Y	Y	Y	Y
	TPE-ICN	BR170	07:30-11:00	A330-300	309	Y	Y	Y	Y	Y	Y	Y
	TSA-GMP	BR156	(화)14:30-18:00 (수)15:45-19:15 (금/토)09:20-12:50	A321-200	184		Y	Y		Y	Y	
	KHH-ICN	BR172	15:50-19:45	A321-200	184		Y	Y(7.1부)	Y	Y	Y(7.1부)	Y
중화항공	TPE-ICN	C1160	07:40-11:10	A330-300	295	Y	Y	Y	Y	Y	Y	Y
	TPE-ICN	C1162	16:10-19:45	A330-300	295	Y	Y	Y	Y	Y	Y	Y
	TSA-GMP	C1260	09:25-12:55	737-800	158	Y			Y			Y
	KHH-ICN	C1164	07:05-11:00	A321 NEO	180	Y	Y	Y	Y	Y	Y	Y
	TPE-PUS	C1188	07:55-11:15	A321neo	180	Y	Y	Y	Y	Y	Y	Y
	TPE-PUS	C1186	15:55-18:55	B738	158	Y	Y	Y	Y	Y	Y	Y
	KHH-GMP	C1184	14:30-18:15	B738	158	Y	Y		Y		Y	Y
	TPE-ICN	IT602	20:00-23:30	A320/A320neo	180	Y	Y	Y	Y	Y	Y	Y
타이거에어	TPE-ICN	IT606	16:40-19:55	A320/A320neo	180	Y	Y	Y	Y	Y	Y	Y
	TPE-CJU	IT654	06:40-09:35 화수금토 06:40-09:30 월목 06:40-09:40 일	A320/A320neo	180	Y	Y	Y	Y	Y	Y	Y
	KHH-GMP	IT662	16:00-19:45	A320/A320neo	180	Y		Y		Y		Y
	RMQ-PUS	IT6636	11:55-15:10	A320/A320neo	180			Y(7.1부)			Y(7.1부)	
스쿠트항공	TPE-ICN	TR896	18:00-21:35 일 17:50-21:35 월목 17:55-21:35 수금	B787-9	375	Y		Y	Y	Y		Y
티웨이항공	TPE-CJU	TW688	14:25-17:30	737-800	189	Y(6.17부)	Y	Y	Y	Y(6.17부)	Y	Y
	TPE-TAE	TW664	02:00-05:25	737-800	189	Y	Y	Y	Y	Y	Y	Y
	TSA-GMP	TW668	14:00-17:25	737-800	189	Y		Y		Y		Y
	KHH-ICN	TW672	16:05-19:50	737-800	189	Y	Y	Y	Y	Y	Y	Y
	RMQ-ICN	TW670	17:00-20:45	737-800	189	Y		Y		Y		Y
	KHH-GMP	TW652	13:45-17:40	737-800	189	Y(6.26부)		Y(6.26부)		Y(6.26부)		Y(6.26부)
에머부산	TPE-PUS	BX794	13:20-16:30	A321 neo	232	Y	Y	Y	Y	Y	Y	Y
	TPE-PUS	BX792	16:30-19:55 월수금토일 16:30-20:00 화목	A321 neo	195	Y	Y	Y	Y	Y	Y	Y
	KHH-PUS	BX796	14:15-17:55	A321	220	Y	Y	Y	Y	Y	Y	Y
진에어	TPE-ICN	LJ732	10:35-14:05	B777-200	393	Y	Y	Y	Y	Y	Y	Y
	TPE-TAE	LJ756	01:50-05:15	B737-800	189	Y	Y	Y	Y	Y	Y	Y
제주항공	TPE-ICN	7C2602	11:50-15:15	B738	189	Y	Y	Y	Y	Y	Y	Y
	TPE-PUS	7C2654	02:50-06:10	B738	189	Y	Y	Y	Y	Y	Y	Y
	TPE-PUS	7C2652	14:50-18:30	B738	189	Y		Y		Y		Y
미스타항공	TSA-GMP	ZE888	14:00-17:25	B738/B38M	189		Y		Y		Y	
	TPE-ICN	ZE882	10:30-13:55	B738/B38M	189	Y		Y		Y		Y
	TPE-CJJ	ZE782	02:10-05:40	B738/B38M	189	Y	Y	Y	Y	Y	Y	Y
	TPE-CJU	ZE886	02:50-06:05	B738	189	Y	Y	Y	Y	Y	Y	Y
에머로케이	TPE-CJJ	RF512	13:15-16:40 월금 13:05-16:40 화목 12:50-16:25 수토 12:55-16:25 일	A320	180	Y	Y	Y	Y	Y	Y	Y

[출처] 자체 정리/ (원 자료 붙임 파일 참조)

○ 주요 분석

- '24.4월 대만-한국 항공노선은 1,964편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동기 (1,938편) 대비 101.3% 회복하여 코로나 이후 월별 항공노선 회복률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지속해서 '19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2,086편) 대비해서는 5.8% 감소하였음
- 이는 진에어의 타이베이-부산 노선(주7회, 189석) 및 에어로케이의 타이베이-청주 노선(주7회, 180석)이 중단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나 4월말 이후 증편 또는 신규 취항 노선이 있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타이거에어의 경우 4월 이후 타이베이-대구 노선(주2회)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타이베이-부산 운항편수가 주2회 증가하여 타이거에어 전체 운항편수에는 변동이 없음

※ 증편 또는 신규 취항 노선

- (에어부산) 타이베이-부산 노선 증편(증편 규모 주7회)_4.27
- (대한항공) 타이중-인천 노선 재운항(주3회)_5.2
- (티웨이항공) 가오슝-김포 노선 신규 취항(주4회)_6.26
- (티웨이항공) 타이베이-제주 노선 증편(증편규모 주2회)_6.17
- (타이저에어) 타이중-부산 신규 취항(주2회)_7~8월
- (창룡항공) 가오슝-인천 노선 증편(증편규모 주2회)_7.1
- 주요 노선별 상황은 전월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는 가운데 차이베이-청주 노선이 비교적 큰폭으로 운항편수가 감소하였음(23.2% 감소) 아울러 전반적으로 많은 노선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타이베이-제주 노선만 전월에 비해 22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2.3 향후 전망

○ 방한 대만관광 '다소 주춤한 4월, 다시 상승세 5월'

- 4월 방한 대만관광객은 117,606명으로 2019년 동기(113,072명) 대비 104.1%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 1월 이후 계속해서 2019년 동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4월 증가율은 3월 증가율(117.3%)에 비해 13.2%p나 감소하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 그러나 5월 들어 이러한 둔화세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3월 증가율 117.3%에는 미치지 못하나 1~4월 전체 증가율(107.5%)은 넘어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 5월은 전통적으로 방한 대만관광객수 규모가 많지 않은 달*이나 올해 5월은 전반적인 회복 흐름 속에 비교적 견조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2019년 기준 5월은 1년 12개월 중 8번째 방한객수를 기록함
- 4월에 비해 5월이 회복세로 돌아선 데는 우선 항공좌석 공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월 부산 및 청주 노선 일부가 중단되었으나 5월에는 부산 노선 증편, 타이중-인천 노선 재운항 등의 호재로 좌석 공급이 다소 원활하였으며 0403 화렌 지진으로 방대만 한국관광객 규모가 다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만인의 좌석 점유율이 보다 상승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힘
- 6월 이후에도 가오슝-김포/인천, 타이베이-제주, 타이중-부산 노선

증편 및 신규 취향이 예정돼 있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좌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여름 성수기 앞두고 제주도, 가족여행 중심 방한관광 관심 증대

- 여행업계 분위기는 전반적인 기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외의 경우 개별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이거나 단체관광의 경우 부산 등 남부지역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도드라지고 있음. 대만여행업품질보증협회의 여행업계 대상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름 성수기 방한관광에서 제주도 및 가족여행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상황임. 4월에도 제주공항 입국 비율이 전체 대만 방한객 가운데 8.8%를 차지하여 2019년 비중 4.6%를 4.2%p나 앞질러 관심의 정도를 증명하고 있음. 공사에서는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OTA 플랫폼 활용 개별관광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및 일일투어 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부산 등에 대한 관심을 남부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자 남부관광 권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Only 대만' 행사를 6월 통영에서 개최해 대만 여행업계 대상 상품판매를 독려하고 있음. 본 상품은 아울러 6개 남부지역 18개 콘텐츠 가운데 최소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음
- 5월말 대만의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TTE)를 통해 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여름 성수기 상품 판매에도 주력할 방침임

3. 타이베이지사 '24.5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3.1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TTE) 참가 및 한국관 운영(5.31-6.3)

- (한국관) 25개 기관 참가, 46개 부스 규모

3.2 대학생 타깃 방한관광 마케팅 추진(3~6월)

- Dcard 이벤트 및 KKday 1일투어상품 프로모션

3.3 K-Fans 멤버십 제도 운영(3~12월)

3.4 방한 지역관광 공모사업 추진(3~7월)_통영 행사 연계 상품개발지원

3.5 대만 예능프로그램 방한촬영(6월) 및 사전답사(5월)_부산/전남

- 3.6 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기획안 준비(5~6월)
- 3.7 대만 인바이트유(Invite you) 초청 사업(5월) 및 Vlog 제작(6월)
 - 대만 웨슬리여고 졸업생 10명 초청
- 3.8 신임 지사장 부임 관련 여행업계 및 항공업계 순회 미팅(5월)
- 3.9 OTA(클룩) 활용, 제주관광공사 공동 FIT 프로모션(6월)
- 3.10 BC카드 및 타이완페이 공동 방한 모바일페이 프로모션(6~8월)
- 3.11 코리아뷰티페스티벌 연계 의료웰니스 팸투어 참가(5.29-6.2_5명)
- 3.12 테마관광박람회 연계 팸투어 참가 및 연사 섭외(6.1-6.7_6명)
- 3.13 3분기 여행업계 공동 상품개발 모객광고지원 준비(6월)
- 3.14 방한 대만 교장단 팸투어 준비(6~8월)
- 3.15 대만 항공업계(중화항공, 대한항공) 공동 업계 설명회(5월)
- 3.16 대구 스타벅스 공동 대만 관광객 대상 이벤트(6월)
- 3.17 방문의해 기념 T1 행사 상품화(5~6월)
- 3.18 BOF 콘서트 활용 상품화(5~6월)

※ 언론매체(ETToday, 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 太報, 경제일보, 중앙통신사,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